



# 접적지역 주민은 이렇게 한다

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## 접적지역의 주민 보호

- 정부와 군은 접적지역의 주민을 보호하고, 원활한 군사작전 수행을 위하여 주민을 대피 또는 이동시킨다.
- 접적지역 주민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거나 후방 지역으로 이동한다. 다만 수도권 유입은 억제된다.

## 후방으로 이동할 때의 유의 사항

- 정부나 군의 통제에 따라 민방위조직(동·리)단위로 지정된 이동로로 일정한 후방 지역(최종 집결지)까지 이동한다.
  - 이후에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연고지나 희망지로 자율적 이동이 가능하다.
  - 이동해 가는 후방 지역에는 이동 주민을 위한 수용 시설과 구호 물자 등이 준비되어 있다.
- 이동할 때에는 남겨둔 재산을 적군이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
  - 양곡과 가축은 군부대에 인계하고
  - 차량과 농기계 등은 주요 부품을 제거한다.

## 이동할 때의 기본 휴대품(1인당 20kg 정도)



- 식량: 비상 식량 7일분(5인 가족 쌀 기준 15kg), 부식 및 간식식품
- 의류 및 침구류: 내의, 모포, 텐트 등
- 비상 약품: 소독제, 해열진통제, 소화제, 지사제, 화상연고, 지혈제, 소염제, 붕대, 탈지면, 반창고, 삼각건 등
- 생활 용품: 취사 도구, 라디오, 핸드폰, 휴대용 전등, 양초, 성냥(라이터) 등
- 화생방전 대비 물품: 방독면, 보호옷, 방독 장갑, 방독 장화 등

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